

국립광주박물관, 24년 전통 '대동문화' 거점 본격화

내달까지 중앙 박물관서 신안도자기 1만7천34점 이관 3·1운동 100년 특별전·지역특화 문화사업도 추진

국립광주박물관이 아시아 도자문화 실 크로드 거점 구축을 위한 사업을 본격 전개한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23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김승희 관장은 지난해 40주년을 맞은 박물관이 올해를 '새로운 도전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정의하고 ▲아시아 도자문화 실크로드 거점 구축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 기념 특별전 ▲맞춤형 교육·어린이 박물관 전면 개편 ▲지역 특화 문화행사 개최 등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장품 중 경관력이 가장 높은 '도

자기'와 지역 주요 의제인 '아시아문화'를 융합, '아시아 도자문화 실크로드 거점'으로 거듭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가장 먼저 소장품 확충에 힘을 쏟는다. 그동안 국립광주박물관의 품을 떠났던 신안해저문화재 가운데 1차적으로 도자기 1만7천34점을 오는 2월 1일까지 이관한다. 남은 신안해저문화재도 2020년까지는 모두 이관할 계획이다.

이관 후 신안해저문화재는 2020년 신설되는 도자실에 공개할 예정이며, 국립광주박물관 주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도 2020년부터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세계의 다양한 도자문화를 소개하는

'세계 도자문화 특별전 1-중국 자주요 박물관 명품'을 4월 30일부터 7월 28일까지 개최한다. 자주요 자기는 우리나라의 분청사기와 유사한 기법을 보이는 '화장토 자기'여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월에는 '한중일 화장토 자기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발간하고 있는 뉴스레터와 학술지도 지속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또한 11월에는 베트남국립역사박물관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베트남 도요지 발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 전시실과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도 진행한다. 올해부터 3년에 걸쳐(2019-2021년) 본관 전시실을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그동안 2층에 있어 관람객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기획전시실을 1층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한



신안해저문화재 포장 모습

국을 비롯한 아시아 도자기와 신안해저 출토 도자기를 모은 공간을 신설한다. 2021년에는 선사시대 근대에 이르기까지 광주·전남지역의 역사·문화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40년의 역사를 지닌 본관도 선제적 시

설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노후화된 건물과 설비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철저히 대비하기 위함이다. 특히 내진광주·전남지역의 역사·문화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40년의 역사를 지닌 본관도 선제적 시

산단으로 진입을 위한 우회전 시 상습정체의 원인으로 지적돼 복구공사 및 밀착협의를 통해 박물관 전면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도 확충해 관람객들에게 휴식과 치유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6월 말까지 관람객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접할 수 있도록 교육관 지하 1층 도서열람실 앞에 '북카페'를 연다.

김승희 관장은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면서 지리적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도자문화는 국립광주박물관이 광주와 전남을 넘어 전국적 박물관으로 나아가는 문이다"며 "또한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기관과 소통하는 문이며, 세계인들이 박물관을 찾는 문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이리 기자 har@namdonews.com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담양 담빛예술창고에서 '남도문예르네상스 인터랙티브 콘텐츠展:사유(思惟)의 정원, 소재원을 거닐다'를 진행한다. 사진은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소재의 시'

첨단 디지털 기술로 만나는 소재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 개발·전시 오는 28~3월 31일까지 담양 담빛예술창고서

담양 소재원을 소재로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전시된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김명원·진흥원)은 오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담양 담빛예술창고에서 '남도문예르네상스 인터랙티브 콘텐츠展:사유(思惟)의 정원, 소재원을 거닐다'를 진행한다.

전시는 '소재의 시(時)', '뜻으로 이룬 공간, 소재원' 등 2개의 콘텐츠로 구성됐다. 먼저 '소재의 시(時)'는 소재원 사계 풍광과 아름다움을 노래한 허서 김인후

선생의 소재원48영(濼園圖四八詠)을 사실적 3D그래픽으로 구현한 미디어파사드 콘텐츠다. 전시콘텐츠 앞에 서면 신비로운 음악과 함께 계절별로 변화하는 소재원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뜻으로 이룬 공간, 소재원'은 소재원의 창건자 양산보와 함께 소재원을 걸어보는 가상현실 콘텐츠로 이뤄졌다. HMD 헤드셋을 쓰고 양산보와 함께 소재원 곳곳을 거닐어보면 자연과 함께 학문을 고민했던 선비들의 자취와 숨결을 느껴볼 수 있다.

또한 송창근 사진작가(한국예총 담양

지회장)의 '소재원 48영' 사진전도 함께 진행된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조선 선비문화의 산실인 별서정원 소재원이 품은 가치와 의미를 디지털 기술을 통해 재조명했다"며 "전시관을 찾아 새로운 방식으로 소재원을 체험하고, 과거 선비들의 풍류와 정취를 한껏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시 콘텐츠는 전라남도 역점사업인 '남도문예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추진중인 '전남 3대 별서정원 콘텐츠 개발 및 보급사업'을 통해 개발됐다. 올해에도 소재원을 비롯해강진 백운동 정림과 완도 부용동정림 등과 연계한 별서정원 콘텐츠가 추가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한이리 기자 har@namdonews.com

24년 전통 '대동문화' 새롭게 변신

최근 110호 발행...읽기 편하도록 디자인 리뉴얼

24년의 전통을 이어온 문화매거진 '대동문화'가 새로운 모습으로 독자들에게 선보였다.

대동문화재단은 최근 발행된 격월간 대동문화 110호<사진>는 종전의 판형에서 세로를 늘려 좀 더 시원함을 주고 내지의 글씨 크기도 키워 눈의 피로를 줄였다고 22일 밝혔다.

또 현대적 감각으로 디자인하고 연재해오던 일부 주제를 빼고 전통문화를 고수하면서 현대적 감각과 접목한 카테고리 추가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감각에 맞게 멋스러움을 더했다.

이번 잡지 리뉴얼의 핵심은 10년 이상을 같은 스타일로 꾸며오던 표지일 글을 전신으로 바꿔 시원스럽게 여백을 줬으며 본문 제목의 서체를 키우고

광고를 기존의 짜여진 틀에서 벗어나 내지 중앙으로 자연스럽게 배치해 딱딱함을 완화시켰다. 전문분야를 지향하는 코너를 좀 더 늘리면서 내용도 디테일하게 디자인해 생동감을 주고 문화적 이슈를 검색해 가장 가까이서 돌아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까지 신경썼다는 것이 대동문화재단측의 설명이다.

이번 호를 접한 한 독자는 "총 6번의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콘텐츠잡지답게 깔끔하고 볼거리가 풍부한 잡지"라며 "그동안 보아왔던 잡지보다 훨씬 세련되고 볼거리도 다양해 대동문화가 맞는지 의심스러웠다"고 전했다.

사단법인 대동문화재단이 발행하는



대동문화는 현재 격월간으로 110호째 발행했다. 월 1만원의 기부회원들의 기부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한이리 기자 har@namdonews.com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만 게임쇼서 지역기업 지원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공동관 운영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박 향)은 24일과 25일 이틀간 '대만게임쇼 2019' B2B존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공동관을 운영한다.

대만게임쇼는 대만 최대 규모의 게임 전시회로 중국, 한자문화권에 속한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하려는 게임업체가 주목하는 전시회다.

B2B존을 통해 매년 많은 비즈니스 계

약 체결이 이루어지면 중화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주요 전략 시장으로 손꼽히고 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경기콘텐츠진흥원은 B2B존에 공동관 운영과 함께 참가 기업들이 직접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외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상담도 함께 지원한다.

이번 대만게임쇼 공동관에는 ▲드래곤플라이(Special Force VR: UNIVERSAL WAR) ▲오리진스튜디오(MyLON

Y) ▲플렉시마인드(ISLAND M) ▲농업스마트테크(VR interactive Tractor VR simulators) ▲가나티니(Bellatia) 등 총 5개의 우리지역 기업이 참가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박향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대만게임쇼 공동관 운영뿐 아니라 지역의 우수한 콘텐츠들이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진흥원은 다양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062-610-2465)

/한이리 기자 har@namdonews.com

이계홍의 역사소설



충무공 정충신 장군<262> 제2부 제2장 선사포 침사

격문대로라면 명군은 왜노를 당장 대마도 바다에 쓸어넣고 일본 열도를 바닷물에 수장시키겠다는 배포다. 그들의 허풍은 알아줄만 했지만 간이 콩알만해진 조선은 감지덕지, 그저 고마울 뿐이었다. 송응창은 이여송 제독의 직속 상관인 원군 총사령관이었으니 이 제독이 송총사령관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다.

이여송이 움직였다. 그는 움직이면 물 불을 안가렸다. 사대수의 선발부대를 보내 왜군의 척후부대를 추격했다. 이를 지켜본 부총병 낙상지는 심히 우려되었다. "이 제독 각하, 적의 척후부대가 쉽게 노출되는 것은 함정일 수 있습니다. 척후병력을 뒤쫓지 마시오. 우리의 화포부대는 장비가 많이 망가져서 출전준비가 덜돼 있고, 아군의 전투 전열을 정비한 뒤 출격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야? 송 경락이 우리군의 게으름을 질타하고 있지 않잖아. 평양성 승전의 여세를 밀어붙이라고 하셨다. 즉각 전투준비!"

낙상지는 이것은 하수라고 생각하면

서도 제독의 말이니 거역할 수 없었다.

한편 왜의 1군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는 평양성 싸움의 대패를 만회하기 위해 벽제관에 진을 치고 황해도에 진출한 3군 선봉장 구로다 나가마사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한양을 지키고 있는 우키타 히데이에 선봉장에게 병력 출진을 당부했다. 그리고 개성에 외곽에 머물고 있는 6군 선봉장 고바야카와 다카카게군대를 불렀다. 조영연합군이 추격을 지체한 사이 왜군은 착실히 전력을 비축한 것이다. 고니시는 척후 병력을 시켜 명군을 벽제관 뒤편 해운령과 망객현(望客峴)으로 유인했다.

승전으로 기세가 등등했던 이여송 부대의 부총병 사대수 부대가 왜의 가도 밀쳐야, 마에노 나가야스 수색부대를 밀격에 무찔렀다. 한 곳에서 60명의 목을 베니 기세가 하늘을 찔렀다. 이여송은 왜군을 더 알잡아 보았고, 파주·고양까지 단숨에 진격했다. 명군은 여세를 몰아 3천의 기병을 한양으로 보내 한양 수복을 노렸다.

명의 기병 주력이 한양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 왜군은 해운령에서 일합(一合)을 준비했다. 조총 사격과 보병전은 왜군에게 유리했다. 기병전이 빠진 명군은 협소한 진영에서 하나같이 나가 자빠졌다. 이여송은 한양으로 진출한 기병을 돌려보내고 포병을 불렀으나 전세를 뒤집기는 이미 늦었다. 명군은 대패하고 말았다. 평양성에서 완쾌한 고니시 부대는 구로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한양으로 들어왔고, 힘을 모아 벽제관 전투에서 명군을 격퇴해버린 것이다. 역시 승패는 병가지사였다.

정충신이 김명원 도원수 막사를 찾았다. "명이 패배했으니 이번에는 우리가 추격해야 합니다. 송돌림 틈을 주어진 안됩니다. 왜병들도 지쳐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탐병들을 이끌고 나가 전정을 살필 테니 군사를 모아주시시오."

벽제관과 지리는 정충신으로서는 명경을 보듯 패했다. 그곳에서 여러날을 묵은 적이 있다. 장계를 풀고 의주로 올라가는 길에 벽제관에 머물면서 말을

구했고, 지해도 쫓았다.

"그렇게 하라."

정충신이 퇴각하는 명의 패잔병 속을 뚫고 삼승역 부근 숲속고개에 매복해 있으니 명군 상당수가 왜군에게 포위되어 있었다. 명군은 전의를 상실하고 짙짙 매고 있었다.

정충신은 조선군을 벽제역, 삼승역, 뒷바고개, 보광사에 일차 대오로 배치토록 사발통문을 보내고, 자시(子時)에 일제히 햇불을 들도록 했다. 밤이 깊자 과연 이 산 저 산, 이 발판 저 발판에서 햇불이 타올랐다. 끔찍 얼어붙은 산야에 햇불은 더욱 선명하게 타올라 위협적이었다. 왜군이 그 수에 놀라 겁을 먹고 일시에 퇴각하기 시작했다. 조영연합군의 합동전에서 거둔 전과는 불 품이 없었지만 조선단독군의 지략 전술로써 왜군을 물리치니 병사들의 사기가 올랐다. 산과 들에서 햇불을 들고 지르는 함성은 천지를 진동하는 듯했다. 그런데 이여송이 왜군을 추격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게 뭐야? 다 이긴 싸움에!"

조선군 병사들이 하나같이 울분을 토했다. 이여송은 왜병의 조총 집중사격을 받고 목숨이 달아난 판에 지휘사 이유승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그래서 이젠 또 당할지 몰라 겁을 먹고 있었다. 한편 죽을 맛을 보면 조그만 도깨비 불에도 혼비백산하는 법이다.

고니시는 평양성 전투에서처럼 명군이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추격해오는 것이 알고 전적 휴전을 제안했다. 그런데 이여송이 이것을 묵시 받아들였다. 다 이긴 전쟁에 휴전을 받아들이니 조선군은 닭똥만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었다. 벽제관 전투의 패배를 딛고 조선단독군의 섬멸작전이 주효한 상황에서 휴전을 받아들이니 왜군은 패퇴시킬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역시 외국군대는 외국군대일 뿐이다. 아무리 우방의 전화(戰禍)를 돕는다고 봐도 우방의 요구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탓할 수만은 없다. 그들을 끝까지 믿고 나라를 구원해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뿐이다.